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충남여민회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부산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국
 함께하는주부모임

발행일 : 1994. 8

발행인 : 이미경, 한명숙, 이영순

발행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주 소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T E L : 279-6891/ 274-2883/ 273-9244

F A X : 264-2778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20% 지방의회 여성의식 확보”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본부

생활정치, 열린정치, 지방자치 여성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 교육, 주택, 의료, 교육, 복지여성,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은 정치의 중심과제입니다.

정치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이어야 합니다.
생활인들에 의한 생활인들을 위한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열린정치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란 바로 생활정치, 열린정치 실현의 장입니다.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 생활의 주역인 우리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활정치, 열린정치로서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제 여성들이 생활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1994년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 0.9%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1.3%
한국여성의원 비율 세계순위 113위

한 나라의 정치발전 척도는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향상되어 왔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안정된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일상생활이 정치의 중심과제입니다.

정치는 특정인의 독점물이 아니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수단 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활정치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정치가 생활의 도구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로 자리잡은 나라들은 대체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 역시 높은 나라들입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조사한 1991년 6월 현재 세계 178개국 여성의원의 진출현황에 따르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평균 35% 이상이며, 한국은 1.3%로서 그 순위는 1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는 건강, 고용, 가족, 교육, 노동 등 국민 생활의 수준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이들 나라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는 남녀의 공동참여, 공동책임 하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도구로서의 생활정치 실현이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1994년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0.9%, 여성국회의원 비율 1.3%로서 세계 순위 113위로 나타나는 한국의 낮은 여성정치참여는 곧바로 한국의 낙후된 정치의 척도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의지와 생활정치실현의 성취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이란 권력개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정치로의 전환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생활인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생활인들의 주역으로서 여성들이 생활정치에 전면으로 등장될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지위향상은 물론 한국의 정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치가 생활의 도구로 제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20%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보

“지방자치 3년 : 0.9% 여성의원의 도전”은 생활정치 실현의 실험이었습니다.

1991년도 지방의회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4304명중 41명, 광역의원 866명중 8명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0.9%입니다.

지난 지방자치 3년 : 0.9% 여성의원의 도전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정치 문화에 주민자치 실현, 깨끗한 정치, 꼼꼼한 지역살림 등 바람직한 생활정치의 모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20%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보

주민자치실험 - 동네안에 국가가 있다

오랫동안 여성운동과 시민운동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온 부천시 초의원은 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 생활정치에 전념으로 나서는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고 범죄가 많고 또 성고문으로 인상이 나뻐던 부천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바른교육을 위한 어머니 모임”과 더불어 벌였던 이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은 92년 7월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 34개지역에서 담배자판기설치 금지조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바로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정치적 과제임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이같은 사례를 이끌어 낸 장본인은 바로 한 아이의 엄마요 생활인이며 주부로서 동네문제를 지방자치, 주민자치와 연결시켜낸 여성의원만이 해낼 수 있는 값진 실험이었습니다.

지역살림을 가정살림하듯 -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의정활동

난곡지역에서 오랜 지역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당선된 관악구 ㄴ의원은 우리가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정살림하듯 지역살림의 낭비성 예산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예산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92년도 관악구 예산 심의에서 전시행정적으로 과도하게 잡혀졌던 쓰레기 봉투예산항목을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노인정 난방비 지원이나, 공중화장실 설치 비용, 기타 주민 복지시설 등의 주민복지예산으로 돌리려고 애썼던 점, 또한 각종 관변단체지원금이 별다른 심의 없이 전액통과되는 관행과 2억 7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신문대금으로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지역살림예산속에 편성되고 지출되어버리는 것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점 등은 바로 지역살림을 가정살림하듯 해내는 여성의원만이 해 낼 수있는 의정활동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막후정치, 성차별적 권위정치를 공개적이고 깨끗한 정치문화로

구로지역주민들의 우선적 숙원과제였던 구로구의 환경오염문제를 갖고 끈질기게 싸워왔던 ㄹ의원은 기존의 관행처럼 되어있던 막후정치문화를 투명하

고 공개적인 깨끗한 정치문화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극적인 사례를 보여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정의로운 지방자치실험과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막후정치를 통해 선출되어오던 의장, 부의장선거문화에서 50명 중 단 한명인 여성의원의 끈질긴 도전은 결국은 의장불신임안을 제출케 하였고 사표제출로 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빈민운동과 여성운동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인천시 북구 ㅎ의원 역시 이같은 막후정치문화의 풍토에서 생활정치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이와는 무관한 여성의 성 상품화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방의회예산에서 미인대회후보의 맛사지비용, 호텔숙박비 비용지원으로 주민의 세금인 지방의회예산이 지불되어 온 것에 대해 지적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같은 지방의회 0.9%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실험은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교통, 교육, 쓰레기, 상·하수도문제, 사회교육문제, 지역살림, 주민복지 등의 생활문제를 정치의 중심과제로 이끌어 냄으로써 생활인의 감각으로 지방정치를 생활정치화 시켜내기 위한 도전이었으며 그러한 도전 속에서 생활인으로서의 여성정치인들이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생활정치,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외국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노르웨이 (1993)	내각여성참여 44% 국회의원 중 여성참여 36%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참여 31%
스웨덴 (1990)	내각여성참여 38%(21명중 8명) 국회의원 중 여성참여 38%(349명중 131명) 지방의회 자치시의원 중 여성참여 34% 도회의의원 중 여성참여 42%
독일 (1991)	내각여성참여 9명 연방의회의원 중 여성참여 20.5% 주의회의원 중 여성참여 11.0%~34.8%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참여 15%~40%

노르웨이

1993년도 현재 여성이 수상이며, 내각의 44%, 의회의 36%, 지방의회의 31%, 정부위원회의 30%와 시의회 위원회의 3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참여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일찍부터 평등한 사회정의에 높은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여왔던 점과 경제적·사회적 남녀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왔던 점,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할당제 도입 : 노르웨이의 할당제는 이미 오래된 제도로서 각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수렴키 위해 정치체제내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978년 평등지위법이 제정되어 양성간의 평등한 지위와 고용상의 평등을 촉진하며 교육에서의 평등, 공공위원회에서의 평등한 대표성 실현 등 여성의 지위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법에 의해 정부관련 부문에서의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할당제 도입 : 1974년 자유당에서 처음 할당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 주요 4개 정당이 각 성별 40% 할당규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1990년 현재 내각의 경우, 여성장관이 38%, 행정부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8년 현재 국회의원의 38%, 지방의회 자치시의 34%, 도의회의 4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발전함에 있어 효율성과 평등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남녀간의 평등지위 확보가 국가 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할당제 도입 : 1988년 스웨덴 국회에서 채택된 「90년대 중반을 향한 정부 평등정책」에 의거해 1989년 정부 각 부처는 남녀평등계획을 수립하여 내각, 공공위원회, 각종 심의회의 구성에 일차적으로 1992년까지 여성지분을 30%, 1995년에는 40%가 되도록 하며, 1998년에는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발적인 기반에 의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할당제 도입 : 1976년 자유당이 가장 먼저 정당의 모든 부서의 40%를 여성에게 보장하는 할당제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다른 정당에서도 일정비율의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5년 현재 각당의 여성의원 비율이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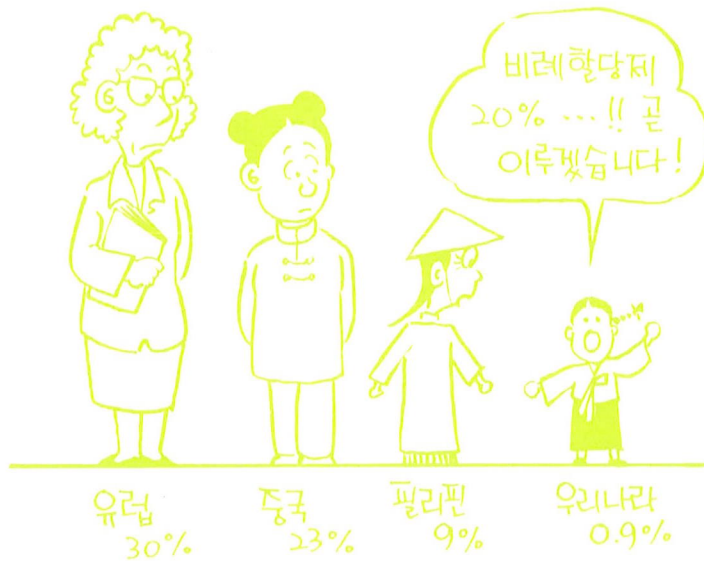
통일 후 새로 구성된 내각에는 장관 등 각료급에 9명의 여성의 등용되었으며, 제 12대 연방의회 여성의원 총수는 136명으로 20.5%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16개주 주의회 여성 의원은 집권당에 따라 11.0%인 주에서부터 34.8%인 주까지 다양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5%에서 40% 이상까지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조치 : 독일은 현 12대(1991~199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 될 예정인 평등권법에 의거해 고위직을 포함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모든 분야에서 채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되도록 보장하 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할당제 도입 : 1986년 녹색당은 가장 처음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정 당으로 여성 50% 할당임용을 당정관에 도입하였고, 사회민주당은 1988년 당 직과 후보자 선정에 있어 각 성이 적어도 40%를 대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 계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할 것을 당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독교민주당 역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참여 나라별 현황 비교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할당제 20%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할당제는 정치적 개혁의지의 문제입니다.

할당제는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할당제가 도입된 나라는 자유 평등 정신에 기초하여 각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이 정 치적으로 확립된 나라,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가 잘 구축된 나 라, 여성문제를 국가공공정책중 우선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 입되고 있습니다.

할당제 20%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 한의 비율입니다.

정치의사 결정직에서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독점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야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있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다수일 뿐입니다.

절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국회(98.8%), 지방의회(99.1%), 국무회의 (91.7%), 각종위원회(94%), 고위직 공무원(98%) 등의 남성 비율은 헌법상 의 남녀평등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이미 관습화되어 있 는 사실상의 차별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통계치로 볼 수 있습 니다.

사회적 현실이 헌법상의 평등권 설립을 공허하게 만든다면 국가는 남녀간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의 11조 1항에서는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하 여 양성평등의 원칙 조항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은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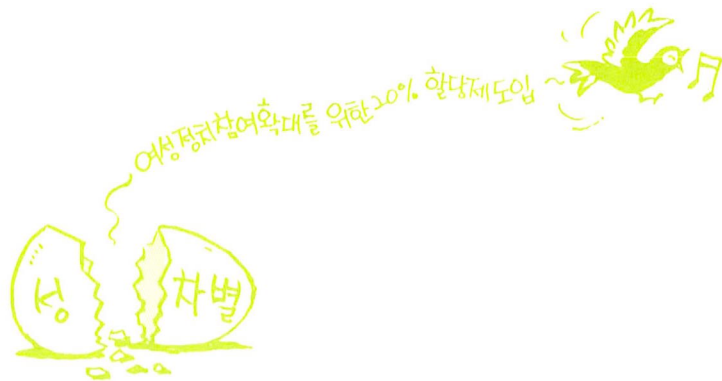
내의 개별적 평등조항인 정치적, 공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생활영역에서도 선언되고 있습니다.

더후기 1989년 국회에서 비준되고 조약으로 공포된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무를 지니며, 기본권 주체인 모든 국가기관이 동 협약의 제 4조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위한 할당제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사 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와 고용 및 교육 훈련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도입이 정치적 개혁의 최우선적 과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개혁의지는 바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20% 여성할당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정치,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에서 보았듯이 정당차원에서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율과 고위정책결정직에의 여성참여율이 증대되어져 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정당차원의 할당제 실시는 한 나라의 정치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운동 차원에서 할당제 20%를 위한 여성정치참여확대는 여성운동의 영역을 현실정치에까지 확대시켜내며 여성정책의제를 주요한 국가공공정책의제로 다룰 수 있게 하는 현실정치적 힘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보를 위해 다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후보 발굴. 지원

지역여성운동 조직화와 여성의원과의 연대망 형성활동
할당제 20% 도입을 위한 정책여론화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후원회 결성

의정지기단 활동

올바른 지방자치법 개정활동

선거자원봉사단 활동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활동

생활정치, 열린정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생활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우리의 생활영역과 관련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내기 위해 그간 여성운동이나 지역운동, 사회운동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온 여성들을 발굴하여 선거에 필요한 선거전략기획과 선거실무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성운동의 조직화와 여성의원과의 연대망 형성활동



여성운동은 지난 2~3년전부터 현실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역량 확대를 위한 준비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준비작업은 바로 지역여성조직화 작업으로서, 지역여성들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여성들 스스로 제기하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교육, 환경문제 등 생활정치이슈들을 조직하여 여성정책이나 지역생활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해

내기 위한 여성후보 발굴작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원들과의 연계망을 형성해 지역주민들과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과제를 여성운동 현장과 의회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여 입법화·제도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여성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정치인과 여성운동과의 공동연대망 형성은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더욱 배양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할당제 20%도입을 위한 정책여론화 활동

여성정책은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력의 분야를 나누는 성평등정책이라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국회(98.8%), 지방의회(99.1%), 국무회의(91.7%), 각종위원회(94%), 고위직 공무원(98%) 등의 비율은 성평등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여성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간 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책을 요구하고 법률, 제도개선 운동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교육제도에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할당제 도입은 이러한 성평등정책의 주요한 조치의 하나는 바로 할당제 도입으로서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로서의 여성할당제 20% 도입을 정부와 정당에게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참여 후원회조직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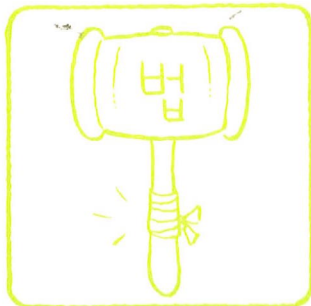
의정지기단 활동

정치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대변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장인 의회 활동이 유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로서 의회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활동은 무엇보다도 의회정치가 권력독점의 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로 서기 위한 압력활동인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의회를 감시·감독하는 의정지기단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법 개정활동



금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생활정치, 주민 자치로서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반영해내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무권한, 주민자치권한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 법률로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른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법 개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자원봉사단 활동

94년에 통과된 정치개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선거에서는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좋은 여성후보를 지원해주고 공정선거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선거자원봉사단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는 당신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 결성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는 94년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0.9%를 95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 각계 각종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한 지원기구입니다. 각 정당과 정부, 언론에 지방의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건의, 홍보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생활정치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기구입니다.

20%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 사업

- 1,000명 후원회원 모집 : 학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재계, 정치계, 사회운동계 등 사회의 전 영역의 관심있는 인사들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해줄 1,000명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지방의회 여성참여확대 500인 남성모임 :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켜 지방자치가 남성과 함께 여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을 바라는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 500인 남성모임”을 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5,000원 후원회원 모집 :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정치참여 확대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들을 “오천원 후원회원”으로 모집합니다.
- 지방의회 여성의석 20% 확보 정책세미나 및 여론 조성활동 :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각 정당과 정부, 언론 매체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및 여론활동을 합니다.
- 생활정치시대를 여는 초가을의 만남 : 후원문화행사

1994. 8. 16. 현재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 확대중에 있습니다.

회 장	이세중(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고 문	강문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강원룡(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김찬국(상지대 총장) 서영훈(시민의신문 공동대표)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이효재(전 이화여대 교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장을병(성균관대 총장), 한승현(변호사)
운영위원회	한명숙 운영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강대인(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정책실장) 김상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인순(화가) 김지영(김지영 내과 원장), 김지하(시인) 김희선(통일시대 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공지영(작가), 박원순(변호사), 박재창(숙대 정법대 학장), 배금자(변호사)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손은경(목회자지원센터 공동대표) 안병무(전한신대 교수, 한국신학연구소 이사장), 유지나(영화평론가) 윤순녀(새세상천주교 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윤영애(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계경(여성신문사 사장), 이문우(한국여성의 전화 대표)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이삼열(숭실대 철학과 교수) 이상덕(한국 환경, 사회정책연구소 교육실장),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시재(성심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양원(변호사) 이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영자(성심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희(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재정(성공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종걸(변호사),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식(부천 YMCA 총무),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조영황(변호사) 조희연(성공회신학대 사회학과 교수), 지은희(여성사회교육원부원장)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정현(만화가), 한명희(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는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 명	한 글		한 자	
직 장	직 장 명		직장전화	
			FAX	
	직장주소			
자 택	우편번호		집 전 화	
	집 주 소			
회원의 종 류	1,000명 후원회원			
	500인 남성모임			
	5,000원 후원회원			
온라인 구 좌	한국외환은행	118-75-02254-9	이 미 경	
	한일은행	064-127913-02-101	한 명 숙	
	국민은행	039-21-0552-198	남 인 순	
	서울신탁은행	29507-1952407	남 인 순	
	상업은행	116-08-009922	남 인 순	